

고대 이스라엘의 의복

— 구약시대 의복을 중심으로¹⁾ —

임미영*

1. 들어가는 말

사람은 지위와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나 알몸으로 평등하게 태어난다. 그러나 곧 추위와 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옷 입는 법을 배우며 더불어 자신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거나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의복을 사용한다. 덕분에 의복은 한 민족과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도움을 주는 자료다. 성경에서도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복으로 자신의 지위와 상황 그리고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구약시대 여인들의 화려한 장신구와 의복이 노끈과 굵은 베옷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사 3:8-16).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베니게, 블레셋, 요단 강 건너의 여러 민족들과 함께 공유한 땅이었고 각 민족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반영하는 의복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혹은 성경의 땅과 관련된 의복이라는 주제는 앗수르와 이집트, 바벨론 등을 연구하는 데 아주 적게 언급만 되었을 뿐²⁾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대부분 제사장의 의복의 의미와 재현에 치중했을 뿐 성경시대 의복 자체를 연

* Bar-Ilan University에서 고고학,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국제성경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adiopoooh@daum.net.

- 1) 본 논문은 필자의 히브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MiYoung Im, "The Costumes of Ancient Palestine during the Iron Age II (1,000-586 B.C.E.)", M. A. Thesis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01)의 일부분을 기초로 하여 최근 자료를 보완하고 내용을 확장하였다.
- 2) 앗수르, 이집트, 바벨론 등의 의복 자료는 다음을 참조. M.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Vol. 1 (New York: Crown Publishers, 1988); L. A. Heuzey, *Historie du Costume dans L'antiquité Classique L'orient. Égypte, Mesopotamie, Syrie Phenicie* (M.C.M: Les Belles Lettres, 1935); M. G. Houston,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and Persian Costume and Decoration*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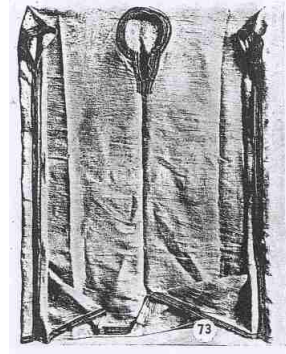
구한 바는 없다. 중동 지역의 강대국들에 비해 팔레스타인 약소국가들의 의복에 관련된 자료는 상당히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강대국들이 남겨 놓은 벽화와 부조, 신상 등은 고대인들의 관습과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팔레스타인은 이와 유사한 고고학적 자료가 거의 없으며, 이와 더불어 문헌 특별히 성경에서도 역시 의복에 대한 자세한 표현들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복은 인류 문화의 가장 기초적인 문화양식으로 성경 속 문화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팔레스타인 땅과 주변에 남겨진 고고학적 자료와 함께 성경 속 의복에 관련된 용어와 표현 등을 통해 성경 시대 이스라엘의 의복을 재현하고자 한다. 지면 상 성경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기에 성경 시대 중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철기 시대 II 혹은 왕국 시대 즉 기원전 1000-586년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자료들을 토대로 각 의복은 부족하지만 필자가 직접 재현물들을 그림으로 그렸다.

2. 고고학적 자료

고대 의복 문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고고학적 자료는 의복 자체가 발견되었을 때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에서 발견된 고고학 자료는 도상학적 자료는 물론 의복 자체 자료도 상당히 빈약하다.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습한 이 지역의 기후 특성상의 복이나 섬유 본연의 자료가 보존되는 확률은 거의 없다. 불과 소수의 유적지에서 아주 작은 조각만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조각은 고대 이 지역 사람들이 입었던 의복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단지 베틀 추라든가 직조 틀 같은 섬유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발견된 바 있어 제조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뿐이다. 성경은 섬유를 제작하고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을 언급한 바 있다. 슬기로운 여인은 스스로 방추를 이용해 실을 뽑는 방법과 섬유를 짜는 방법을 알고 있다(출 35:25, 잠 31:13, 19).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을 앗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머리를 베틀의 낄실과 섞어 짜야 한다고 말했다(삿 16:13-14). 이러한 모습은 여인들이 실을 뽑고 옷감을 짤 수 있는 도구들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스라엘의 여러 유적지에서는 뼈, 돌, 토기 조각 등으로 만든 작은 방추와 낄실을 늘어뜨렸을 때 무게를 주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베틀 추 등이 발견된 바 있다.³⁾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섬유는 린넨⁴⁾과 울이었다.

린넨은 이집트에서 수입해 온 $\psi\psi$ 가 가장 값비싼 것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출 28:5, 39; 39:3, 27).⁵⁾ 기원전 1405-1352년 사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실제로 린넨이 발견된 바 있다(그림 1).⁶⁾ 이 의복의 발견으로 우리는 성경 시대 린넨의 정교함을 볼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이 옷을 입을 수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이 옷의 형태는 마치 성경의 대제사장이 입는 למעלה 과 비교되고 있는데, 여인의 드레스처럼 길이가 긴 치마로 목이 있는 부분은 둥글다가 정면에서 살짝 브이라인으로 되어 있다. 소매는 없지만 살짝 어깨 부분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감이 있다. 이집트에서 제조한



<그림 1> 때베의 건축가 차의 무덤(기원전 1405-1352년경)에서 발견된 린넨 의복 (Davenport 1948: 73)

린넨 섬유는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일반인들이 아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합은 여리고에 온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말리고 있던 아마(한국어 성경은 ‘삼베’로 번역했다) 줄기 아래 숨겨졌다. 라합은 햇빛에 말린 아마에서 실을 뽑아 린넨을 직접 베틀에서 짚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울로 만든 섬유도 즐겨 입었는데, 쿤틸렛 아즈루드(Kuntillet ‘Ajrud) 유적지에서 린넨 조각과 함께 울로 된 섬유도 발견된 바 있다.⁷⁾ 쿤틸렛 아즈루드에서는 염색한 섬유도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푸른색 린넨 실과 붉은 울 실이 흰 린넨을 장식하는 데 사용된 조각도 있다. 이 조각은 שעטני 즉 린넨과 울을 섞어짜지 말라는 이스라엘의 율법(레 19:19)을 지키지 않은 유물로 더 유명하지만, 덕분에 성경에서 제사장의 의복에 가장 많이 사용된 자색(ארגמן)과 청색(תכלת)의 색감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색깔들이 제사장의 의복에 어떻게 어우러지게 사용되었는가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다.

3) L. Bellinger, “The Bible as a Source Book for the Study of Textiles”, *Workshops Notes* 18 (194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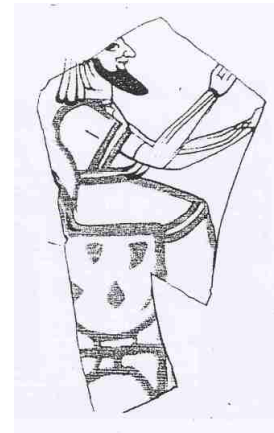
4) 성경은 베 혹은 베옷으로 린넨을 번역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린넨은 대부분 이집트나 일강변에서 자라는 식물인 아마에서 실을 뽑아내어 짠 섬유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아마로 만든 섬유인 린넨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본 논문에서도 ‘베’보다는 정확한 용어인 린넨을 사용할 것이다.

5) A. Hurvitz, “The Usage of $\psi\psi$ and bus in the Bible and its Implication for the Date of P”, *HTR* 60 (1967), 117-121.

6) L. Bellinger, “The Bible as a Source Book for the Study of Textiles”, 4.

7) Z. Koren, “The Colors and Dyes on Ancient Textiles in Israel”, Ch. Sorek and E. Ayalon., eds, *Colors from Nature, Natural Colors in Ancient Times* (Tel Aviv: Eretz Israel Museum, 1993), 17.

도상학적 자료에 있어서도 벽화와 부조, 신상 같은 자료 등을 남긴 앗수르나 이집트 등과 달리 가나안 민족들은 그들의 모습을 남겨 놓은 자료가 거의 없다. 소규모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던 가나안 땅은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율법의 실천으로 보다 더 적은 자료를 남겨놓았을 뿐이다. 그나마 찾아 볼 수 있는 몇몇 형상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여인들로 별거벗은 몸을 하고 있다. 단지 일부 형상들이 머리모양이나 치마를 입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본 논문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형상 외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들 중에는 라맛 라헬(Ramat Rahel)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⁸⁾ 위에 왕이나 귀족층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있을 뿐이다(그림 2). 쿤틸렛 아즈루드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 위의 그림은 일반적인 의복이 아니라 이집트의 종교적 모습을 흉내내어 그린 그림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⁹⁾



<그림 2> 라맛 라헬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 위에 그려진 임금 혹은 상류층의 인물 (Matthiae 1964: 4)

본 논문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자료들은 오히려 앗수르 같은 팔레스타인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었다. 기원전 9세기-7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앗수르는 전쟁 모습 속에 이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담았다. 앗수르의 임금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전쟁을 치루었는가를 기록하기 위해 적들의 땅과 모습을 궁전 벽화와 벽 부조에 담았다. 물론 앗수르 임금들과 군인들의 모습에 비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그리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이 자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약한 지식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앗수르의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A. 님루드에서 발견된 살만에셀(Shalmaneser) III세(기원전 859-824년)의 블랙 오벨리스크(Black Obelisk) (그림 3)

B. 디글랏 빌레셀(Tiglath-pileser) III세(기원전 745-727년)의 궁전 벽화(그

8) P. Matthiae, "The Painted Sherd of Ramat Rahel", Y. Aharoni, ed., *Excavations at Ramat Rahel Seasons 1961 and 1962* (Rome: Centro Di Studi Smitici, 1964).

9) P. Beck, "The Drawings of Kuntillet 'Ajrud", *TA* 9 (1982), 2-68; M. Im and G. Barkay, "Egyptian Influence on the Painted Human Figures from Kuntillet 'Ajrud", *TA* 28:2 (2001), 288-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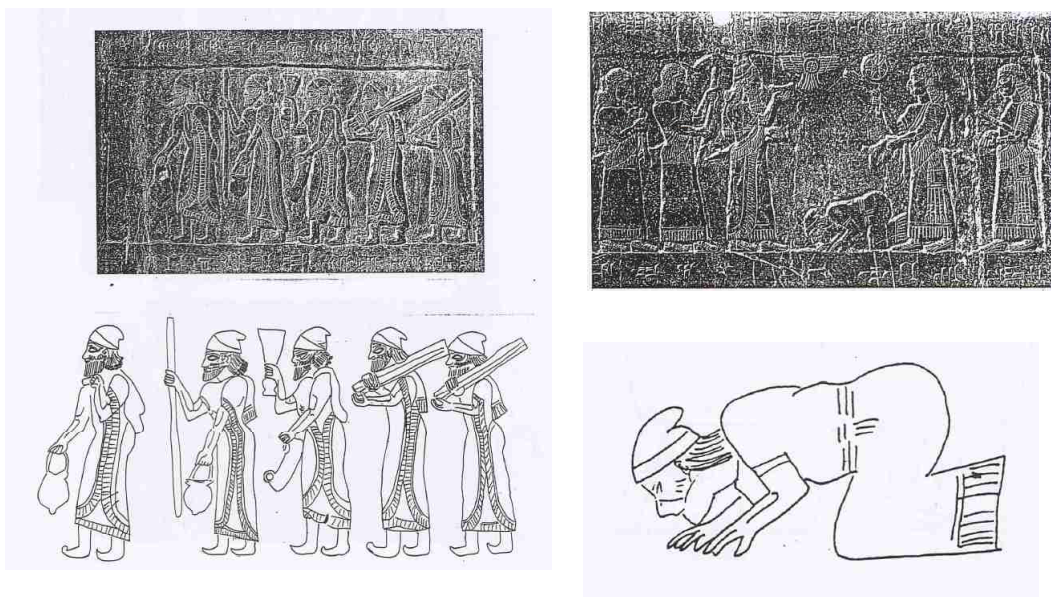
림 4)와 벽 부조

C. 니느웨에서 발견된 사르곤(Sargon) II세(기원전 722-705년)의 궁전 벽 부조(그림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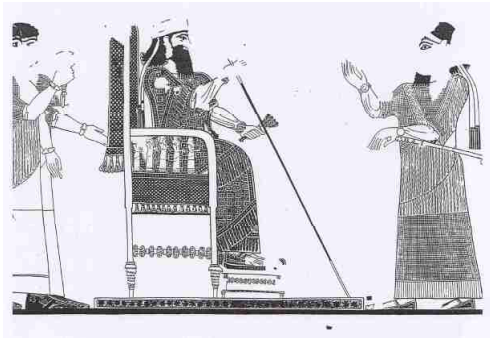
D. 니느웨에서 발견된 산헤립(Sennacherib[기원전 705-681년])의 궁전 벽 부조(그림 8-10)

3. 히브리어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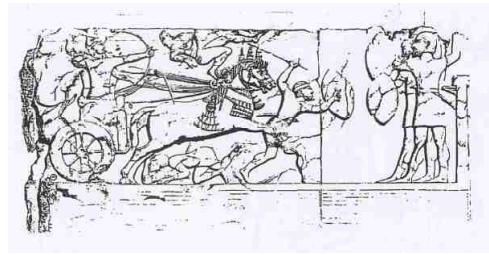
구약 성경에는 의복에 대한 설명과 의복을 언급한 구절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용어는 상당히 단순해서 겉옷과 속옷으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용어들을 가지고 고대 의복의 모습을 상세하게 떠올리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 용어들 자체가 고대 의복을 재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상세하게 의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도 않고 사실 그들이 어떤 의복을 입었는지 정확한 모습을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의복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용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허리띠라든가 신발 같은 보다 상세한 용어들과 모습은 남성과 구약시대 의복을 다루는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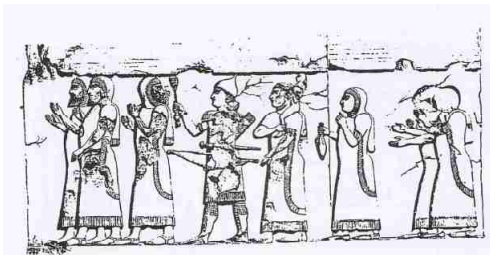
<그림 3> 블랙 오벨리스크에 묘사되어 있는 예후와 그의 신하들 (Reade 1983: 45, 62, 63; 임미영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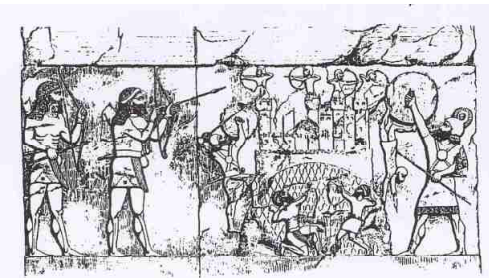
<그림 4> 텔 아흐마르에서 발견된 벽화에 그려진 디글랏 빌레셀 Ⅲ세 (Thureau-Dangin 1930: Pl. XL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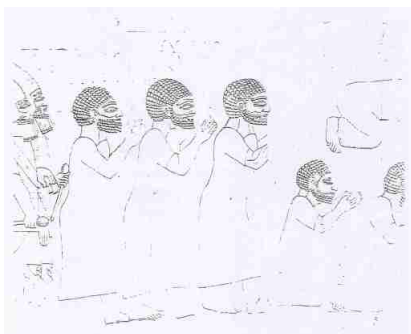
<그림 5> 사르곤 Ⅱ세의 궁전 벽 부조에서 발견되는 사마리아 사람들(Franklin 1994: 268-270)



<그림 6> 사르곤 Ⅱ세의 궁전 벽 부조에서 발견되는 아스돗 사람들(Franklin 1994: 268-270)



<그림 7> 사르곤 Ⅱ세의 궁전 벽 부조에서 발견되는 에그론 사람들(Franklin 1994: 268-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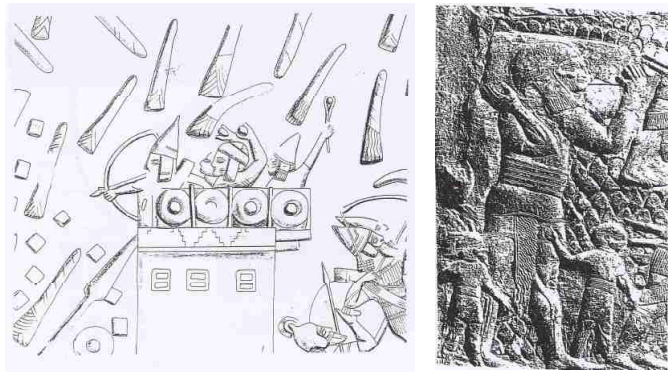
<그림 8> 산헤립의 벽 부조에 나타난 길이가 긴 속옷만을 입고 끌려가고 있는 라기스 남자들(Ussishkin 1982: 77)



<그림 9> 산헤립의 벽 부조에 나타난 라기스 성을 빠져 나가고 있는 피난민들(Ussishkin 1982: 77)

의복을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로 용어는 כִּטָּה이다. כִּטָּה는 성경에 200번 이상 등장하지만 특정 종류의 옷이나 혹은 모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כִּטָּה는 단지 의복을 의미할 뿐이다(레 6:27). 때로 언약궤의 덮개(민 4:6-9)나 침대보(삼상 19:13)처럼 옷감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남성(창 39:12)과 구약시대(창 3:4)의 의복을 지칭하거나 대제사장(레 8:30; 출 28:2)이나 과부(신 24:17), 임금(삿 8:26; 삼하 13:31; 왕상 22:10; 왕상 1:1 <다윗>;

대하 18:9 <아합>, 심지어 전쟁 포로(왕하 25:29, 렘 52:33)의 의복도 모두 כנר라고 불렸다. 남녀의 의복은 구별되어 다른 모습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신 22:5), 고고학적으로도 남녀의 의복은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군인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길이가 긴 옷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산헤립의 벽 부조에 나타난 남왕국 유다의 독특한 두건과 허리띠를 하고 있는 라기스 남자들(Ussishkin 1982: 77)

כנר는 울이나 린넨으로 만든 모든 의복을 의미하며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일반적인 의복 전체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인 속옷은 כתונת이라고 불렸다. 그리스어의 키톤과 같은 용어이며 로마에서도 유사한 의복을 입었다. 우리가 보통 원피스라고 부르는 의복처럼 생겼는데, 머리를 넣을 수 있는 입구가 있는 통으로 짜진 옷이다. 길이는 무릎 바로 아래나 발목까지 길게 입었다. 소매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었다.¹⁰⁾ כתונת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입은 옷으로, 주로 실내복으로 입었다.¹¹⁾ כתונת이 처음 성경에 언급된 것은 창 3:21로 여호와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으로 כתנת을 만들었다. 블랙 오벨리스크에는 울로 만든 כתונת이 언급되어 있으며¹²⁾ 성경은 린넨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레 16:4; 스 3:69; 느 7:69, 71). 피부에 가장 먼저 닿는 옷이었으며 허리에는 띠를 둘렀다. 제사장들 역시 כתנת을 입었는데(출 29:5, 8; 39:27; 40:14; 레 8:7, 13; 10:5) 대제사장은 푸른색 린넨을 입기도 했다. כתונת은 때로 수를 놓기도 했는데(출 28:4, 39), 수를 놓거나 수술같은 장식이 달린 것들은 일반인이 아닌 제사장이나 상류층이 입는 것이었다.

주로 겹옷으로 번역된 מעיל을 כתונת 위에 입었다. 신명기에 의하면 지위가 높은 이들 예를 들어 사울(삼상 18:4; 24:5, 12)과 왕자들(스 26:16), 사무엘(삼상 15:27), 다윗(대상 15:27), 그리고 공주들(삼하 13:18)이 주로 입었다. 이 용어의 어원은 על로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린넨으로 만든 옷처럼 머리 부분이 뚫려 있고 소매가 있는 옷으로 보이지만 칼라 부분에 여밀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출

10) J. M. Myers, “Dress and Ornaments”, *IDB* 1 (1962), 869.

11) G. H. Mackie, “Dress”, *ABD* 1 (1988), 624.

12) U. H. Matthews, *Manners and Customs in the Bible* (Cambridge: Peabody, 1968), 117-119.

39:28). 앗수르의 벽 부조들이 주로 옆모습을 조각하고 있어 사실 앞모습이 어떤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집트 떼베(Thebe)에서 발견된 기원전 1450년경 무덤벽화에 의하면 시리아에서 온 사자들이 이러한 의복을 입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³⁾ 앗수르 궁전의 벽 부조에서도 임금들의 의복의 목 부분을 끈으로 여미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는데,¹⁴⁾ מַעֲיִל과 סָתוּת 모두 원피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전자의 경우는 목 부분에 여미는 끈이 있었을 것이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מַעֲיִל은 코트나 자켓 같은 겉옷을 지칭한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에 가장 적합한 겉옷은 שַׁלְמָה/שַׁמְלָה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용어의 어원은 “감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שַׁלְמָה/שַׁמְלָה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천 모양으로 위의 두 의복 위에 둘러싸는 형태로 입는 겉옷이다(창 35:2; 출 2:26; 신 8:4; 10:18; 21:13; 22:3; 사 3:6, 7; 삼하 12:20). 밤에는 낮에 비해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שַׁמְלָה는 담요처럼 밤에 덮고 자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창 9:23). 또한 머리를 덮는 머리쓰개로도 사용되었다(삿 8:25; 삼상 21:10). שַׁמְלָה는 값비싼 선물(왕상 10:25)이나 전쟁의 포획물(수 22:8)로도 기록되어 있다. 포로기 이전에는 남성과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겉옷을 통칭할 때 שַׁלְמָה가 사용되었으나 신명기학파의 문헌과 포로기 이후 문헌에서는 구약시대의 겉옷을 שַׁמְלָה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성이 구약시대의 의복을 입어서는 안된다는 율법은 구약시대의 의복을 שַׁמְלָה로 사용하였다(신 22:5). 포로기 이후 문헌은 남성의 겉옷은 שַׁמְלָה(신 24:13; 29:4; 수 9:5, 13; 왕상 11:29, 30; 느 9:21; 욥 9:31)로 표기하고 있다. 에스더서에서 여인의 겉옷은 모두 שַׁמְלָה로 표기하고 있으며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구약시대의 드레스를 שַׁמְלָה라고 부른다.

성경상의 속옷과 겉옷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용어들을 살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고고학적 자료에서 이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발견된 형상이나 도상학적 자료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비록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앗수르와 이집트 등의 자료들로 인해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왕국 시대 남성과 구약시대 그리고 각각의 다른 민족들의 의복을 재현해 볼 것이다.

13) A. Rubens, *A History of Jewish Costum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7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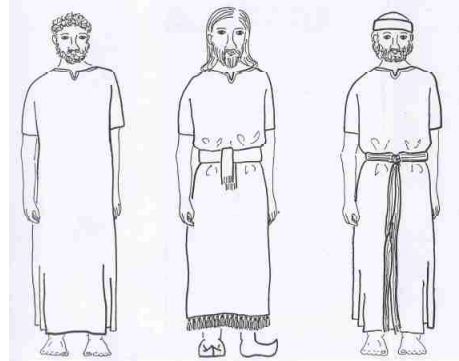
14) R. D. Barnett, *Assyrian Palace Reliefs and their Influence on the Sculptures of Babylonia and Persia* (London: Batchworth Press, 1960), 28.

4. 남성 의복

4.1. 속옷

남성의 일반적인 속옷은 כתנת(그림 11). 예후와 그의 신하들은 기원전 9 세기에 기록된 살만에셀 III세의 ‘블랙 오벨리스크’¹⁵⁾에서 짧은 소매에 길이가 긴 כתנת을 입고 있다. 그들의 의복 끝자락은 앗수르의 의복처럼 수술이 달려 있다(그림 3).¹⁶⁾ 앞서 언급한 것처럼 כתנת의 길이가 길 때 행동의 제약이 있기에 길이가 긴 כתנת은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상류층이 주로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상류층 사람들에게만 수술이 허락되었을 것이었다. 여기서 주의할 만한 모습은 예후의 신하들은 כתנת 위에 겉옷을 두르고 있는 것에 반해 예후는 כתנת만을 입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아마도 앗수르의 임금 살만에셀 III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겉옷을 벗고 속옷만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약소국 임금의 수치스러운 의무였을 것이다. 예후의 허리에는 술이 늘어져 있는 허리띠가 메어져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술을 민수기 15:38-39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의복인 ציצית 즉 네 귀퉁이에 달려있는 수술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의견이 맞다면 4개의 수술이 보여야 하는데 반해 허리춤에 있는 끈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אבנ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 용어는 이집트어 *bnd*에서 차용된 것으로 “감다”라는 의미이다. אבנט은 이사야는 썬나의 악행으로 인해 그의 지위가 엘리야김에게로 넘어갈 것을 예언하면서 썬나의 כתנת과 כתנת이 엘리야김에게 입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사 22:21). 그러므로 אבנט은 어떤 특별한 지위를 상징하는 띠로 허리에 묶고 옆으로 끈을 늘어뜨려 발목까지 닿게 한 것으로 보인다.¹⁷⁾ ציצית은 속옷보다는 겉옷과 함께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도상학적 자료에서도 כתנת을 발견할 수 있다. 므깃도에서 발견된 청동 받침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두 남자는 길이



<그림 11> 이스라엘 민족 남성의 속옷 כתנת (그림 임미영)
좌: 일반적인 כתנת, 중: 끝자락에 수술이 달려진 כתנת, 우: 제사장의 כתנת

15) J. Reade, *Assyrian Sculp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45, 62, 63.

16) A. L. Oppenheim, "The Golden Garments of the Gods", *JNES* 8 (1949), 184, fig.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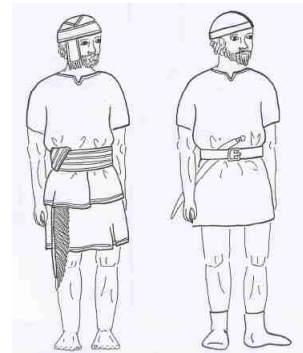
17) G. H. Mackie, "Dress", 626.

가 긴 כתונה를 입고 있다.¹⁸⁾ 라맛 라헬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 위에 그려진 형상도 역시 길이가 긴 כתונה를 입고 있다.¹⁹⁾ 겹옷 아래 살짝 보이는 그의 כתונה 자락에는 수술이 달려 있다. 인물의 오른팔 위쪽에 있는 선으로 보아 이 כתונה의 소매는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왕국 유다 백성이 짧은 소매에 길이가 긴 כתונה를 입고 있는 모습을 산헤립의 벽 부조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그림 8).²⁰⁾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인 것으로 보아 그들의 겹옷은 앗수르 군인들에 의해 이미 벗겨진 상태였을 것이다. כתונה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사장들의 속옷으로도 입었다(출 29:5, 8; 39:27; 40:14; 레 8:7, 13; 10:5).

כתונה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속옷으로 디글랏 빌레셀 III세의 궁전 벽 부조에 등장하는 요단 강 건너 북쪽 아스타르투(Astartu) 사람들 역시 그들의 겹옷 아래 כתונה를 입고 있다.²¹⁾ 더불어 사르곤 II세의 벽 부조에 등장한 아스돗 사람들도 כתונה를 입고 있다(그림 6).²²⁾ 앗수르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남자들은 소매가 짧고 길이가 긴 כתונה를 입고 있는데, כתונה의 끝자락에 수술이 달려 있어 이들이 상류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속옷의 의미로 사용된 또 다른 단어는 מדים으로 군인들의 의복으로 보인다(삼상 4:12; 17:38-39; 18:4) (그림 12; 그림 13). מדים의 모습은 앗수르 벽 부조에 기록된 전쟁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라기스²³⁾와의 전쟁에서는 남왕국 유다 군사를, 사마리아²⁴⁾와의 전쟁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군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5; 그림 10). 또한 게셀²⁵⁾, 아스돗²⁶⁾, 에그론²⁷⁾의



<그림 12> 이스라엘 민족 남성의 속옷 מדים (그림 임미영). 좌: 남왕국 유다(라기스) 군사, 우: 북왕국 이스라엘(사마리아)

18) G. Loud, *Megiddo II: Seasons of 1935-1939*,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6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l. 238.

19) P. Matthiae, "The Painted Sherd of Ramat Rahel", 4.

20) D. Ussishkin,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1982), 77.

21) J. Reade, *Assyrian Sculpture*, 46,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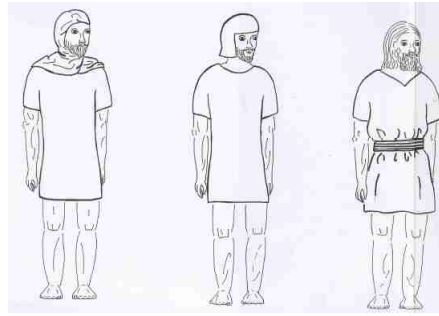
22) P. Albenda, *The Palace of Sargon, King of Assyria* (Paris: E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1986), Pl. 103; N. Franklin, "The Room V Reliefs at Dur-Sharrukin and Sargon II's Western Campaigns", *TA* 21 (1994), 269, fig. 7.

23) D. Ussishkin,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77.

24) N. Franklin, "The Room V Reliefs at Dur-Sharrukin and Sargon II's Western Campaigns", 268, 269, figs. 6, 7.

25) W. G. Dever, "Gezer Revisited: New Excavations of the Solomonic and Assyrian Period Defences", *BA* 47 (1984), 214.

전쟁에서는 블레셋 군인들도 볼 수 있다(그림 6; 그림 7). 의복의 목 부분은 כְּתוּנָה의 것과 유사하나 다른 점은 둥글게 처리된 것이 아니라 브이 자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보다 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을 것이다. 전쟁에서는 당연히 활동이 자유로워야 했기에 מַגֵּד의 길이는 짧아서 무릎 바로 위에 닿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병사들의 하체가 도시 성벽에 가려져 정확한 길이를 알 수 없는 것들도 있



<그림 13> 독특한 군사용 두건(מַגֵּד)이나 투구를 쓰고 תְּבִישׁ을 입고 있는 블레셋군사들 좌: 아스돗 중앙: 예그론 우: 게셀(그림 임미영)

다. 라기스와 사마리아의 군인들은 허리에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하고 있는데, הַחֲנֹרְרוֹ로 해석되며 칼을 차는 데 사용하였다(삼하 20:8; 왕상 2:5; 왕하 3:21; 사 32:11). הַחֲנֹרְרוֹ에는 화려한 장식이 덧대졌던 것으로 보인다(잠 31:24). 사마리아에서 철로 만든 허리띠용 버클이 발견되었는데, 이스라엘 왕국시대로 연대가 측정되었다²⁸⁾. 호르밧 키트미트(Horvat Qitmit)에서 발견된 점토형상은 에돔인들도 동일한 의상을 입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²⁹⁾

일반인들의 속옷 중에는 מַגֵּד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허리에 매어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מַגֵּד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허리에 두르고 개인적인 용품들을 찰 수 있었다. 기원전 1900년경의 기록으로 보이는 이집트 베니하산(Beni Hasan)에서 발견된 무덤 벽화³⁰⁾에서 가나안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상의는 입지 않은 채 짧은 길이의 마치 스코틀랜드의 켈트처럼 생긴 의상을 입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므깃도에서 발견된 청동 받침대의 길이가 긴 כְּתוּנָה를 입고 앉아 있는 이들은 분명 지위가 높은 이들이거나 앗수르의 유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이 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 지위 높은 이들 앞에는 מַגֵּד만을 걸친 이들이 서 있다.³¹⁾ 또한 하술에서 발견된 상아 유물에도 מַגֵּד만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서 손을 들어 경

26) N. Franklin, "The Room V Reliefs at Dur-Sharrukin and Sargon II's Western Campaigns", 268, fig. 6.

27) Ibid., 270, fig. 8.

28) J. W. Crowfoot, G.M. Crowfoot, and K.M. Kenyon, *Samaria-Sebaste III: The Objects from Samaria* (London: Palestine Exploration Fund, 1957), 357, 4a.

29) P. Beck, "Catalogue of Cult Objects and Study of the Iconography", I. Beit-Arieh, ed., *Horvat Qitmit, An Edomite Shrine in the Biblical Negev*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Monograph Series of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1995), 70.

30) C. Sachs,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W.W. Norton, 1940).

31) G. Loud, *Megiddo II: Seasons of 1935-1939*,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6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l. 238.

배를 뜻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³²⁾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제대에는 점토로 만든 한 남자가 허리에서부터 띠를 두르고 옷을 입은 듯한 모습이 일부 남아 있어 아마도 \aleph 를 입고 있으리라 해석하고 있다.³³⁾ 그는 상의는 입고 있지 않지만 허리 부분에 매듭이 지어져 있어 \aleph 를 묶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 \aleph 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허리에서부터 둘러 앞부분이 겹치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솔과 므깃도에서 발견된 예들에서 겹치는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 포로기 이후 문헌에서 \aleph 는 그리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속옷은 이스라엘 민족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베니게 같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leph 를 입은 사람들이 등장한 하솔의 상아 조각은 베니게 예술 양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므깃도의 제대 역시 앗수르의 종교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앗수르의 벽 부조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누구도 \aleph 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이는 없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왕하 1:8)와 예레미야(렘 13:1)가 \aleph 를 그의 허리에 찼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스라엘 민족은 \aleph 를 하체를 가리는 단순한 속옷으로 입은 것이 아니라 속옷 위에 허리띠처럼 두르고 칼이나 소지품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주머니 등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³⁴⁾ 앗수르의 군사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것으로 아마도 기원전 8세기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의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의복 형태였을 것이다. 유다, 특히 라기스의 사람들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길이가 짧은 속옷 위에 허리부터 넓은 직사각형 천 곧 \aleph 를 한 번 정도 휘감은 후 허리 부분에 수술이 달린 허리띠를 둘러 고정시키고 허리띠의 한쪽 끝을 \aleph 의 안쪽으로 넣어 첫 번째 단 사이로 흘러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입었다(그림 12 좌). 같은 라기스의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형태의 \aleph 를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2. 겹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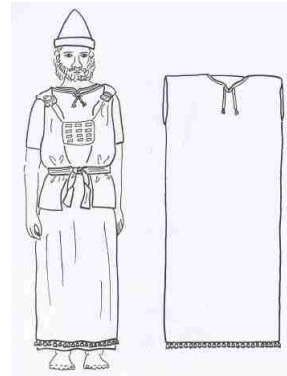
대제사장들은 고운 린넨으로 만든 כתונה 위에 소매가 없고 원피스처럼 길이가 길며 위에서부터 내려 입는 형태의 겹옷인 מעיל을 입었다(출 28:31, 34;

32) Y. Yadin, et al., *Hazor I* (Jerusalem: The Magnes Press the Hebrew University, 1958), Pl. CLV.

33) Y. Shiloh, *Excavations at the City of David I. 1978-1982, Qedem 19* (Jerusalem: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84), 59, fig. 23.

34) D. R. Edwards, "Dress and Ornamentation", *ABD 2* (1992), 233.

29:5; 39:22, 24, 25, 26, 28; 레 8:7; 28:4)(그림 14). **מעיל** 은 앞서 언급했던 이집트에서 발견된 린넨의 모습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대제사장의 겹옷은 청색이나 자색으로 염색했으며 끝자락은 청색, 자색, 홍색으로 만든 석류와 금으로 만든 종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했다. 성경에는 제사장들만이 입는 독특한 의복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מכנסיים**이다. 항상 복수로만 사용된 이 단어는 현대의 바지와 같은 형태로 고운 린넨으로 만들었다(출 28:42). 제사장들은 제사에 참석할 때 의무적으로



<그림 14> 대제사장의 **מעיל**과 **אפוד**(그림 임미영)

מכנסיים를 입어야만 했다(출 28:42).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מכנסיים**를 입어야 했다(레 16:4). 또한 제단에서 불탄 제물의 재를 거둘 때도 의무적으로 입어야만 했다(레 6:10). 제사장은 허리에 **אבנט**를 둘렀는데, 상류층 사람들의 허리띠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제사장들의 것은 청색, 자색, 홍색의 실로 짠 것으로 그 어떤 것보다 화려했을 것이다. 제사장의 의복 중 가장 독특한 것은 **אפוד**이다. **אפוד**은 “앞치마처럼 허리부터 드리워진 것으로 고정하기 위해 어깨부터 줄로 연결되어 있다. 아마도 하체 부분 전체를 가리도록 되어 있었을 것이다. 어깨 부분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 6개씩 나누어 각각 기록된 두 개의 오닉스 혹은 줄마노 보석이 금 장식 위에 얹힌 것이 붙어 있었다”.³⁵⁾ **אפוד**은 금실이 섞여 짜졌지만 청색 자색 홍색을 섞어 짰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אפוד**을 입었다(삼상 2:18).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출 때도 **אפוד**을 입고 있었다(삼하 6:14). 다윗도 **אפוד**을 입었던 것으로 보아 반드시 제사장만이 입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가질 때 입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대제사장은 **אפוד**과 연결하여 가슴 부위에 흉패를 달았다(출 25:7; 28:4, 6, 12, 15; 29:5; 35:9, 27; 39:2, 7; 레 8:7; 삼상 2:28; 14:3; 21:10). 안타깝게도 제사장의 의복은 현재 그 어떤 것도 남은 것이 없어 이를 재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본 논문은 최대한 물질적 자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묘사는 단순할 수 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남성과 구약시대의 겹옷은 모두 **שלמה/שלמה**라고 불렀다. 남성의 겹옷만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에는 **אדרת**이 있는데, 전자에 비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다. “영광”이라는 뜻의 **אדר**가 어원이다. 에서의 털이 많은 피부를 비유하여 표현한 겹옷이 **אדרת**(창 25:25)

35) C. Mayers, “Ephod”, *ABD* 2 (1992), 550.

로 현대의 모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로 아간이 여러고 성의 함락 당시 흠뻑뻑 목욕 중에 있었던 것(수 7:24)으로 보아 당시에도 꽤 값나가는 의복이었을 것이다. אָרָה는 엘리야가 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던 겹옷으로(왕상 19:13, 19) 후에 엘리사는 이 אָרָה으로 기적을 행했다(왕하 2:8, 13, 14). 니느웨의 임금까지도 입었던 것으로 보아(은 3:6) אָרָה은 값나가는 모피 같은 외투였을지도 모른다. אָרָה 역시 고고학적 자료는 너무나 빈약하여 재현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팔레스타인의 해가 지면 급격히 떨어지는 밤의 기온과 비가 많이 오는 겨울의 추위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위해 שִׁמְלָה처럼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생겨 몸에 두르거나 덮고 잘 수 있는 형태의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유물 중 שִׁמְלָה/שִׁמְלָה로 보이는 겹옷을 걸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라맛 라헬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 위의 그림이다(그림 2).³⁶⁾ 라맛 라헬은 성경의 벤학게렘(렘 6:1; 느 3:14)으로 보이는 장소로 발견된 유물들과 건물의 규모로 보아 여호야김이 임금이 된 후 불의로 지은 그의 궁전이 자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렘 22:13-19). 이곳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에는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수염을 기른 한 인물이 붉은 색과 검은 색의 잉크를 이용하여 그려져 있다.³⁷⁾ 검은 잉크는 머리와 인물의 윤곽을 얇은 선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된 데 반해 옷과 머리를 칠하기 위해서 붉은 색이 사용되었다. 비록 인물의 머리 윗부분이 보존되지 못했지만 적어도 앞으로 빠져나온 수염이라든가 긴 머리카락 등 얼굴은 잘 남아 있다. 잘 정돈된 머리 모양과 수염으로 보아 이 인물은 성인을 의미하며 더불어 그가 내밀고 있는 손 모양과 앉아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앗수르 임금을 연상시키고 있어 임금이나 지위가 높은 인물로 보고 있다.³⁸⁾ 앉아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의복 역시 앗수르의 임금들, 예를 들어 디글랏 빌레셀 III세, 앗수르바니팔, 산헤립 등³⁹⁾이 입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는 길이가 긴 כַּתְנֶת을 입고 있는데, 오른쪽 팔뚝에 검은 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매는 짧은 것으로 추측된다. כַּתְנֶת 위에는 굵고 붉은 색깔의 두 개의 선들이 오른쪽 팔과 허리 그리고 무릎 부분에 그려져 있어 겹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앗수르의 임금의 옷과 비교했을 때, 팔과 무릎 위에 그려진 두 선

36) P. Matthiae, "The Painted Sherd of Ramat Rahel", 8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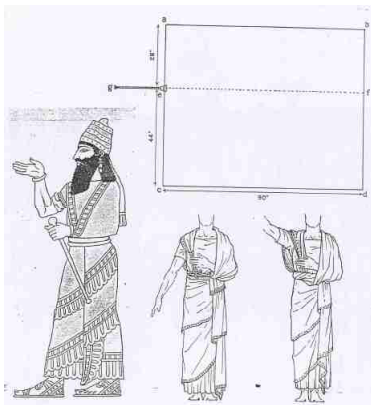
37) Ibid., 85.

38) Ibid., 86-87; Y. Aharoni, *Excavations at Ramat Rahel: Seasons 1950 and 1960* (Roma: Centro di Studi, 1962), 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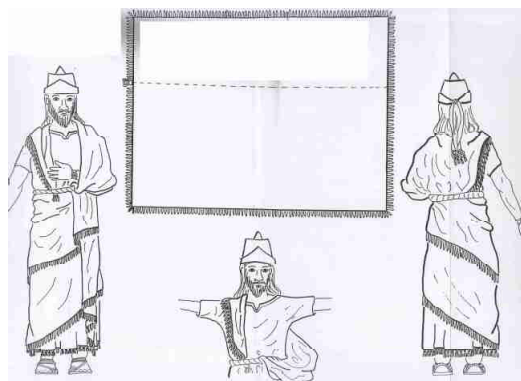
39) R. D. Barnett, *Assyrian Palace Reliefs and their Influence on the Sculptures of Babylonia and Persia*.

들은 수술이 달려 있는 겹옷이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허리에 있는 선은 겹옷의 드레이프를 고정하기 위해 허리에 띠를 두른 것으로 보인다. 앗수르 임금의 조각상과 벽화, 벽 부조 등으로 하우스톤(Houston)은 이러한 겹옷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그림 15).⁴⁰⁾ 그녀의 재구성에 의하면 이러한 겹옷은 수술이 달려 있는 중간에 긴 끈이 달린 직사각형의 천 하나가 필요하다.

To drape the shawl: Take the garment and fold over on the line *e-f* so that *e, f, a, b* hangs down outside; then take the cord *e-g*, as illustrated, and hold *g* at right side of waist in front, throwing the remainder of the shawl backwards over the right shoulder. Draw the edge *e-f* round the back of neck and form a sling over the left arm as shown. To complete the draping, continue to pass the edge *e-f* round the waist towards the right, passing under the right arm at waist level, then on round back and left side, until it reaches about 6 inches in front of left side of waist; now fold the remainder of drapery underneath, as shown in the drawings, and tie a cord round waist to keep all firmly in position; knot the end of the cord *e-g* to this waist-cord. (Houston 1954: 138)



<그림 15> Houston의 임금의 겹옷 재구성 그림(Houston 1954: 137,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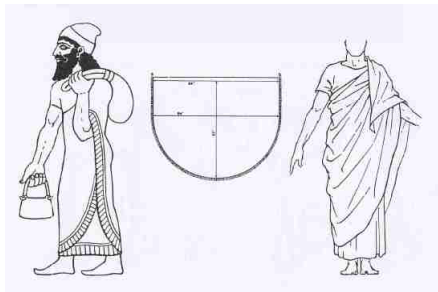
<그림 16> 임금의 겹옷 הַמְּלִיכָה (그림 임미영)

그러나 그녀의 재현을 여러 번 실험한 결과 필자는 허리에 흘러내리는 듯하게 걸쳐 입은 겹옷의 흐름을 고정하고 어깨로부터 내려오는 겹옷의 다른 끝을 걸어 놓기 위해서 보다 긴 허리띠가 따로 필요함을 느꼈다. 또한 그녀가 그린 겹옷을 입은 모습의 흘러내린 방향도 잘못 되어 있어 뒷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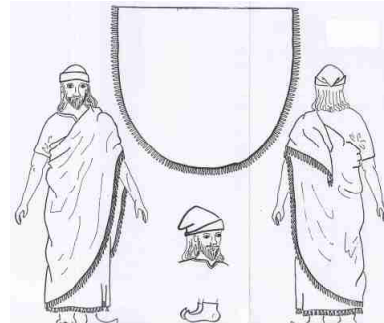
40) M. G. Houston,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and Persian Costume and Decoration*, 134-138.

다시 그려 보았다(그림 16).

단지 임금만이 *שלמה/שמלה*를 입은 것은 아니다. “블랙 오벨리스크”에 등장하는 예후의 신하들도 그들의 *כתונה* 위에 겹옷을 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3). 또한 아스타르투의 사람들 역시 유사한 겹옷을 걸치고 있다⁴¹⁾.



<그림 17> Houston의 신하들 겹옷 재구성 그림(Houston 1954: 137, 147)



<그림 18> 신하의 겹옷 *שלמה/שמלה* (그림 임미영)

그들의 옆모습을 통해 볼 때 겹옷은 양쪽으로 수술이 달린 곡선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하우스톤은 이들의 겹옷도 역시 재구성한 바 있는데,⁴²⁾ 신하들의 *שלמה/שמלה*는 직사각형이 아닌 반원형의 형태로 곡선 부분에만 수술이 달려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그림 17). 임금의 겹옷과 달리 반원형의 겹옷을 입는 방법은 간단했다.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겹옷의 긴 면을 꺼서 어깨를 드러내게 한 후 한쪽 끝은 앞에서 왼쪽 어깨로 넘기고 다른 쪽 끝은 뒤로 해서 왼쪽 어깨의 앞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녀의 재구성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블랙 오벨리스크”에 표현된 예후의 신하들을 자세히 보면 어깨 뒤쪽으로 스카프가 훑날리는 것처럼 드리워진 것이 있는데, 등의 1/2만 덮고 있다. 그러므로 이 *שלמה/שמלה*를 입을 때 먼저 뒤로 가 있는 끝을 먼저 왼쪽 어깨 앞으로 드리우고 나서 다른 끝을 앞쪽에서 뒤로 넘겨 왼쪽 어깨를 다시 가리면 이처럼 등 뒤로 흘러내리게 할 수 있다(그림 18).

콜사바드(님루드)에서 발견된 사르곤 II세의 궁전 벽 부조에서 아스돗의 남자와 여자들 모두 *כתונה* 위에 수술이 달린 겹옷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6, 그림 21).⁴³⁾ 이들의 겹옷은 이스라엘의 것과 달랐다. 옆모습만이 묘사되어 있지만 그들의 왼쪽 어깨와 측면은 수술이 달린 겹옷으로

41) J. Reade, *Assyrian Sculpture*, 45, 63, 64.

42) M. G. Houston,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and Persian Costume and Decoration*, 146-147.

43) N. Franklin, “The Room V Reliefs at Dur-Sharrukin and Sargon II’s Western Campaigns”, 269, fig. 7.

덮여 있다. 아이를 어깨에 엮고 가는 여인의 오른쪽 어깨가 드러났는데, 수술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스돗 사람들의 겂옷은 한쪽 어깨는 덮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머리를 감싸고 있는 두건에도 수술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겂옷과 연결되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어깨 뒤로 넘겨져 수술과 함께 드리워져 있는 부분도 겂옷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아스돗 사람들의 겂옷 역시 필자는 반원형으로 곡선 부분에만 수술이 달린 것으로 본다. 입는 방법은 이스라엘과 달랐다. 먼저 등근 면이 아래로 가도록 등 전체를 덮은 후 한쪽 끝은 왼쪽 어깨를 감싼 후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놓는다. 다른 쪽 끝은 오른쪽 어깨를 감싸는 대신 얼굴 쪽으로 올려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위로 감싼 후 왼쪽 어깨 뒤쪽으로 넘겨 등으로 흘러내리도록 하였을 때, 그림에서 보이는 형태의 겂옷이 나올 수 있다.

4.3. 머리쓰개

성경은 제사장들의 두건 외에 다른 머리쓰개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도상학적 자료에서는 오히려 남성의 여러 가지 머리쓰개 모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위가 높은 이들은 자루처럼 생긴 모자를 쓴 것으로 보인다. “블랙 오벨리스크”에 드러난 예후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아스타르투 사람들은 소위 “프리지아 모자(Phrygian cap)”라고 불리는 뿔죽한 관 모양으로 꼭지는 뒤로 부드럽게 넘어가 접혀 있는 형태의 모자를 썼다 (그림 3, 그림 18).⁴⁴⁾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점토 형상⁴⁵⁾ 하나도 “프리지아 모자”를 쓰고 있다. 안타깝게도 남왕국 유다의 상류층에서 무엇을 머리쓰개로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라맛 라헬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 위에 그려진 남성은 목으로 흘러내린 긴 머리만 남아 있고 위쪽은 파손되어 없다.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구별되는 두건이 있었던 것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귀족보다는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앗수르 벽 부조에 묘사된 라기스 사람들은 독특한 두건을 두르고 있다.⁴⁶⁾ 긴 천을 머리에 두르고 양쪽 끝을 얼굴 측면으로 드리지게 하여 귀를 덮도록 되어 있다. 비록 파손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거칠게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나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점토로 만든 남성의 머리 역시 유사한 두건을 두르고 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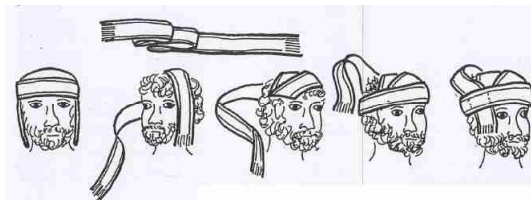
44) J. Reade, *Assyrian Sculpture*, 45, 46, 62, 63, 64.

45) J. W. Crowfoot, G.M. Crowfoot, and K.M. Kenyon. *Samaria-Sebaste III: The Objects from Samaria*, Pl. X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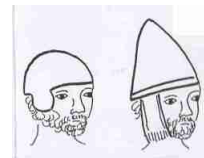
46) R. D. Barnett, “The Siege of Lachish”, *IEJ* 8 (1958), 161-164.

47) T. A. Holland, “A Study of Palestinian Iron Age Baked Clay Figurines, with Special Reference

긴 점토가 머리 부분을 두르고 있고 양쪽 귀 위로 다시 직사각형 모양의 점토가 드리워져 있다. 베플러(Wäfler)는 이 특별한 두건을 재구성하였는데,⁴⁸⁾ 오른쪽 귀만을 가리는 것으로 재현했다. 그러나 도시의 성탑에서 보이는 라기스의 군사들은 그들의 왼쪽 귀도 두건으로 가려져 있다. 그러므로 두건은 두 귀가 모두 가려지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그림 19). 라기스 벽 부조에서 소를 끌고 가고 있는 남성은 두건을 쓰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머리가 짧다. 아마도 유다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하고 두건을 썼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독특한 두건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산헤립의 이쉬타르 신전 앞을 지키는 경비병 중 하나가 이 두건을 쓰고 있어 흥미롭다. 아마도 그는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군인들 중 하나로 그가 가지고 있던 군복을 그대로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그 외의 다른 점토로 만든 남자 형상들은 귀를 덮는 부분은 없이 긴 끈만을 머리에 두른 것처럼 묘사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토 형상은 므깃도⁵⁰⁾에서 두 개, 텔 제메(Tell Jemmeh)⁵¹⁾에서 두 개, 예루살렘⁵²⁾에서 한 개가 발견되었다. 때때로 이들의 두건에는 곡선을 새겨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림 19> 남왕국 유다의 독특한 두건 쓰는 방법(그림 임미영)



<그림 20> 이스라엘 군사들의 두건
좌: 사마리아 우: 라기스

군사들이 쓰는 투구(קַבִּיט)도 지역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라기스를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는 원뿔 형태의 뾰족한 투구를 머리에 그냥 쓰거나 앞서 언급한 독특한 두건 위에 쓰기도 하였다.⁵³⁾ 사르곤 II세의 벽 부조

to Jerusalem: Cave 1”, *Levant* 9 (1977), 112.

48) M. Wäfler, *Nicht-Assyrer in Neuassyrischen Darstellungen* (Kevelaer: Butzon and Bercker, 1975), 65.

49) R. D. Barnett, *Assyrian Palace Reliefs and their Influence on the Sculptures of Babylonia and Persia*, 28.

50) H. G. May, *Material Remains of the Megiddo Cul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35), Pl. XXXIII.

51) F. Petrie, *Gerar* (London: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in Egypt, 1928), Pl. XXXVI.

52) T. A. Holland, “A Study of Palestinian Iron Age Baked Clay Figurines, with Special Reference to Jerusalem: Cave 1”,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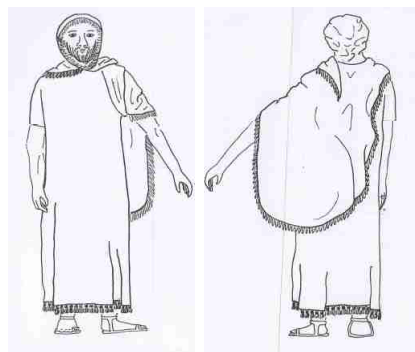
53) B. Mazar and E. Mazar, *Excavations in the South of the Temple Mount, the Ophel of Biblical*

에 의하면 사마리아 군사들은 머리에 보다 들러 붙는 둥근 형태의 투구를 쓴 것으로 보인다(그림 5; 그림 20).⁵⁴⁾

대제사장의 경우 린넨으로 만든 두건 형태의 **מַצְנֵפֶת**를 쓰고(출 28:4, 37, 39; 29:6; 39:28, 31, 37; 레 8:9; 16:4) 그 위에 원뿔⁵⁵⁾ 모양의 **מַעֲבֵעַת**을 썼다(출 28:40; 29:9; 레 8:13).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고학적 자료의 부족으로 제사장의 두건 역시 재현하기는 어렵다.

결혼식에서 남성은 좀 더 독특한 두건(**פֶּאָר**)을 두른 것으로 보이는데(사 61:10), 어떤 형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남성과 구약시대가 동시 두른 것으로 보아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티아라 형태일지도 모른다. **פֶּאָר**는 기쁨의 상징으로도 쓰였으며(겔 24:17) 제사장들이 쓰기도 했다(겔 44:18; 출 39:28).

앞서 겹옷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스돗의 남자들은 겹옷의 일부를 두건처럼 사용하여 얼굴과 머리 전체를 감싼 것으로 보인다(그림 21). 군사들도 유사한 머리쓰개를 하고 있는데⁵⁶⁾, 단지 겹옷보다는 작은 것으로 머리와 어깨 부분만을 감싸도록 되어 있다. 여전히 얼굴만 드러내고 있어 마치 현대 무슬림 여인들의 두건을 연상케 한다. 같은 블레셋 사람이지만 에그론의 군사는 두건이 아닌 투구를



<그림 21>아스돗의 겹옷 **שְׂמֹרֶת/שְׂמֹרֶת**
(그림 임미영)

썼다.⁵⁷⁾ 에그론의 투구는 머리에 딱 맞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귀 부분은 가리지 않았다. 텔 도르(Tel Dor)에서 발견된 석회석 판(기원전 9-7세기)에 새겨져 있는 남성의 경우 베니게 사람으로 추정하며 머리에 딱 맞는 투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⁸⁾ 단지 측면의 머리와 어깨만이 조각되어 있음에도 슈테른(Stern)은 이 조각이 이집트의 예술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후기 청동기(기원전 1600-1200년) 시대의 유물인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상아 판⁵⁹⁾에 조각된 연회 장면에서 임금의 뒤에 서 있는 신하와

Jerusalem, Qedem 29 (Jerusalem: Institute of Archaeology, Hebrew University, 1989), 117, Pl. 29.9.

54) N. Franklin, "The Room V Reliefs at Dur-Sharrukin and Sargon II's Western Campaigns", 268-269.

55) W. H. Mare, "Dress", *ZPE* 2 (1975), 164-170.

56) N. Franklin, "The Room V Reliefs at Dur-Sharrukin and Sargon II's Western Campaigns", 268, fig. 6.

57) *Ibid.*, 270, fig. 8.

58) E. Stern, "Phoenician finds from Tel Dor, Israel", *Rivista Di Studi Fenici* 19 (1991), 98

이 조각을 비교한 바 있다.⁶⁰⁾ 신하는 면도를 깨끗이 한 것처럼 수염이 없고 도르의 남성과 유사한 머리에 꼭 맞는 투구를 쓰고 있다. 연회 장면에서 임금의 뒤에 서 있는 면도를 깨끗이 한 남성들은 대부분 임금을 보필하는 내시로 해석된다.

4.4. 신발

일반적으로 신발은 נַעֲלָיִם 으로 복수로 사용된다(창 14:23; 신 25:10; 29:4; 수 5:15; 9:5; 암 2:6; 8:6; 사 11:15; 5:27; 출 3:5; 12:11; 겔 24:17, 23; 삿 9:13; 왕상 2:5). 신발은 주로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끈으로 묶게 되어 있었다(창 14:2; 사 5:27).⁶¹⁾ נַעֲלָיִם 이라는 단어는 발 전체를 감싸는 신발이나 샌들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로 종류에 구별 없이 사용했다. 신발은 의복보다 더 적은 자료가 남아 있어 그 모습을 재현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블랙 오벨리스크”에 의하면 예후와 그의 신하들은 앞쪽 끝이 위로 올라가 있는 모양의 발 전체를 감싸는 신발을 신고 있다. 길이는 목 부분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부츠 형태를 연상시킨다. 앗수르의 묘사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군사들은 특징이 없는 단순한 부츠를 신고 있다. 이러한 부츠는 성경에서 נַעֲלָיִם (사 9:5)으로 묘사된 신발로 보이는데, נַעֲלָיִם 은 아카드어 *semu*의 차용어로 앗수르 군사의 가죽 신발을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그림 12 하).⁶²⁾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신발은 샌들로 여름에 더운 이 지역의 필수 아이템이다. 이집트나 앗수르의 자료에는 임금들도 샌들을 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신발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샌들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아스돗 사람들의 샌들이 앗수르 벽 부조에 있어(그림 6; 그림 21)⁶³⁾ 고대 샌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비록 옆 모습이기는 하나 발목을 감싸는 끈이 있고 그 끈에서 발바닥으로 향하는 끈이 직선으로 내려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산헤립의 벽 부조에 묘사된 라기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거나 성에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로 모두 맨발로 표현되었다.

59) J. W. Crowfoot and G. M. Crowfoot, *Early Ivories from Samaria* (London: Palestine Exploration Fund, 1938), Pl. XI.

60) E. Stern, “Phoenician finds from Tel Dor, Israel”, 98.

61) D. R. Edwards, “Dress and Ornamentation”, 234.

62)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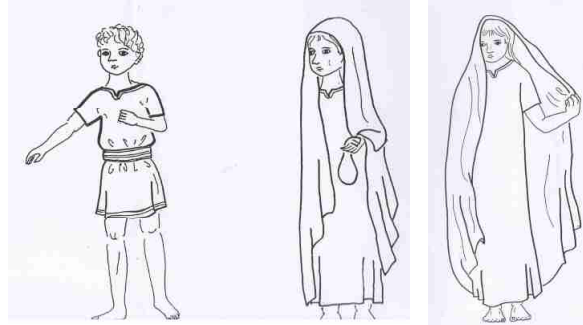
63) N. Franklin, “The Room V Reliefs at Dur-Sharrukin and Sargon II’s Western Campaigns”, 269, fig. 7.

5. 여성 의복 (그림 22)

성경에 의하면(사 3:18-24) 여성은 상당히 화려한 의복과 다양한 장신구로 치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상학적 자료는 여성의 나체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그들의 아름다운 유품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5.1. 속옷

고대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여인들은 남성들처럼 길이가 길고 소매가 달린 **כתונה**를 입었다. 이사야 3:22, 24는 “감싸다”라는 의미나 “드리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속옷들도 언급하



<그림 22> 남왕국 유다의 아이들과 여인(그림 임미영)

고 있지만(**מעטפות**, **פתיל**, **מהלצה**)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앗수르 부조에 등장하고 있는 라기스의 여인들은 모두 **כתונה**를 입고 있다.⁶⁴⁾ 므깃도에서 발견된 점토로 만든 두 여인상 역시 **כתונה**를 입고 있으며 목 주변에는 화려한 목걸이를 걸고 있다.⁶⁵⁾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발견된 기둥 몸통 여인상(Pillared shaped figurine)의 경우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예술적 기조도 **כתונה**의 경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없어 클레터(Kletter)는 이 여인상들이 속이 비치는 투명한 옷인 **גליין**(사 3:23)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⁶⁶⁾ 아크집(Achzib)에서 발견된 베니게의 점토로 만든 여인상들도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길이가 긴 **כתונה**를 입고 있다.⁶⁷⁾ 반면 아스돗의 여인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자들과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כתונה**의 끝자락이 수술로 장식된 것으로 보아 상류층의 여인들은 수술을 달아 자신들의 의복을 화려하게 장식했음을 알 수 있다.

5.2. 겉옷과 머리쓰개

64) D. Ussishkin,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77.

65) H. G. May, *Material Remains of the Megiddo Cult*, Pl. XXVII.

66) R. Kletter, *The Judean Pillar-Figurines and the Archaeology of Asherah* (Oxford: Tempvs Reparatum, 1996), 50.

67) M. W. Prausnitz and E. Mazar, “Achzib”, *NEAEH* 1 (1993), 33-34.

여성의 겹옷의 일반 명칭은 שמלה이다. שמלה를 남성처럼 몸에 둘러 감싸 입은 예는 니느웨의 벽 부조에 묘사된 앗수르바니팔의 왕비 앗수르-샤라르(Ashur-Sharar)가 수술 달린 שמלה를 입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⁶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스돗의 여인들도 남성이 입은 것과 같은 겹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경우 שמלה를 몸을 둘러 감싸는 겹옷으로 입은 도상학적 자료는 없다. 대신 직사각형의 천을 머리부터 쓰고 등 뒤로 흘러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입었다. 이러한 머리쓰개는 조선시대 장옷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당시 여인들은 두루마기를 머리부터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사각형의 치마를 쓰기도 했다. 라기스의 여인들은 앗수르의 침략을 피해 피난을 가면서, 또한 전쟁 이후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러한 שמלה를 머리부터 쓰고 있다.⁶⁹⁾ 등을 따라 내려온 길이가 כהנת의 치마 끝자락까지 닿고 몸통 전체를 덮고 있어 여성의 שמלה의 크기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아크집에서 발견된 점토 여인 형상을 통해 우리는 베니게 여인도 이스라엘 여인들과 유사한 שמלה를 사용하여 머리부터 쓰개로 썼던 것을 알 수 있다.⁷⁰⁾ 단지 베니게의 것이 길이가 좀 더 짧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듯 남성과 여성이 שמלה를 입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율법은 남성에게 여성처럼 שמלה를 입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신 22:5).

여인의 겹옷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로는 מטפחת가 있다. 보아스가 롯에게 보리를 담아줄 때 그녀는 자신이 쓰고 있던 מטפחת에 담아 이고 갔다(룻 3:15). 롯이 요단 강 건너에서 온 모압 여인인 것을 기억할 때 어찌면 그녀는 고향의 의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מטפחת는 요단 강 건너의 여인들이 입는 겹옷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요단 강 건너에 살았던 에돔 사람들의 유적지 중 하나인 호르밧 키트미트에서 발견된 한 여인의 형상은 현대 무슬림 여인들이 자주 쓰는 머리쓰개처럼 얼굴만 남긴 채 머리를 모두 감싸고 어깨까지만 내려오는 쓰개를 쓰고 있다.⁷¹⁾ 이러한 머리쓰개는 아마도 מטפחת의 예로 보이는데, 현대의 스카프처럼 직사각형의 천을 이용하여 머리 전체를 감싸고 나머지는 뒤로 넘기도록 하였을 것이다. 롯은 이 מטפחת를 벗어 보리를 담아 자루처럼 사용했을 것이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길이가 긴 머리를 유지한 채 머리

68) M. G. Houston,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and Persian Costume and Decoration*, picture.

69) D. Ussishkin,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77.

70) M. W. Prausnitz and E. Mazar, "Achzib", 33-34.

71) P. Beck, "Catalogue of Cult Objects and Study of the Iconography", 101.

쓰개를 쓰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도상학적 자료들은 머리쓰개 사이로 그녀들이 긴 머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마리아 상아 조각들이나 기둥 몸통 여인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집트의 여인들이 주로 쓰는 가발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르나 일반적인 여성들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여인들은 머리 위에 שביס(사 3:18)라 불리는 머리띠를 하고 있었으며 얼굴을 가리는 베일 רעלל 혹은 צעקל를 결혼식 때 썼다(창 24:65). 때로는 창녀들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베일을 쓰기도 했다(창 38:14,19). 베일은 이집트의 무희들이 쓰는 것처럼 투명하게 비추는 재질로 만들었을 것이다.

5.3. 신발과 장신구

여성의 신발도 남성의 신발과 동일하게 נעלים이라고 불렸다. 남성의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신발도 앓수르의 벽 부조에서 아스돗 여인이 신고 있는 샌들밖에 없다.⁷²⁾ 아스돗 여인의 샌들은 앞서 걸어가고 있는 남성의 것들과 유사하나 발목에서 발바닥으로 내려오는 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습은 맨발인 채로 묘사되어 있다.

여성들이 소지하고 다녔던 흥미로운 물건 중 하나는 שקרו로 소지품용 주머니나 지갑 같은 것이었다(사 3:22, 그림 9, 그림 22). 산헤립의 벽 부조에 등장하고 있는 라기스의 여인들은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다.⁷³⁾ 여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주머니에 담아 피난길에 나섰을 것이다. שקרו의 크기는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치료를 부탁할 때 그는 은 두 달란트를 שקרו에 담아왔다(왕하 5:23). 은 한 달란트가 34kg인 것을 감안할 때 여기서 사용된 שקרו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주머니는 아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인장이 찍혀 있는 점토에서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 그의 허리에 שקרו를 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⁷⁴⁾ 그의 שקרו에는 귀중품이나 물건을 살 때 화폐로 사용되었던 은 조각들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가방이나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고대인들도 린넨으로 만든 שקרו에 은이나 보석들을 담아 갖고 다녔을 것이다. 아랏, 벤산, 므깃도, 에그론 등의 유적지에서 은 조각들이나 보석들과 함께 이 귀중품을 썼던 린넨 조각들도 같이 발

72) N. Franklin, "The Room V Reliefs at Dur-Sharrukin and Sargon II's Western Campaigns", 269, fig. 7.

73) D. Ussishkin,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77

74) N. Avigad, *Hebrew Bullae from the Time of Jeremiah, Remnants of a Burnt Archiv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86), 31.

견된 바 있다.

사 3:18-24에 의하면 여인들에게는 다양한 장신구가 있었다. 몇몇 여인 형상에서 목걸이, 팔찌, 발찌 등이 표현된 것으로 보이는 선이나 점토를 덧 붙인 것이 목격되기는 하지만 성경 속의 장신구들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목 록들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5.4. 아이들의 의복 (그림 22)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고대 팔레스타인의 아이들 의 의복을 찾는 작업은 그리 쉽지 않다. 산헤립의 라기스 벽 부조에서 아이 들이 묘사되어 있기는 하나⁷⁵⁾ 단지 성인의 축소형일 뿐 아이들이 색다른 의복을 입었음을 알 수는 없다.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모두 성인과 같은 옷 을 입고 있으나 크기만 작을 뿐이다. 남자 아이들은 כְּתוֹנֶת을 입고 허리에 두 께운 띠를 하고 있다. 낙타를 끌고 있는 한 남자 아이는 남왕국 유다의 독특 한 두건을 쓰고 특이한 방식으로 입었던 אֶזְמוֹת을 입고 있다. 이 아이의 경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성인의 두건과 허리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이 가 좀 더 많은 아이일 수 있다.

여자 아이들은 성인 여성처럼 שַׂמְלָה를 머리부터 쓰고 כְּתוֹנֶת을 입고 있다.

6. 나가는 말

비록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기원전 1000-586년 팔레스타인 지역의 의복 을 재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고고학적 자료와 성경적 자료를 서 로 비교 고찰했을 때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결론을 수집할 수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이 시대 의복들을 남녀, 노소, 그리 고 각 민족의 의복을 최대한 구별하여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직업이나 지위에 따르는 의복을 재구성하지는 못했다. 물론 라맛 라헬에서 발견된 그림 덕분에 임금 혹은 상류층의 인물의 의복 을 재현할 수 있었고 앗수르의 벽 부조 덕분에 이 지역 군사들의 모습을 재 구성해 볼 수 있었지만 제사장의 의복이라든가 그 외 다른 직업군에 대해 서는 토론하지 못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의복에 관련된 유물들이 발견되 어 본 주제에 풍성한 자료를 제공하기를 바랄 뿐이다. 또 다른 바람은 본 연

75) D. Ussishkin,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77

구가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 놓칠 수밖에 없었던 구약시대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Keywords)

의복, 속옷, 겉옷, 머리쓰개, 신발.

Costumes, Inner garment, Outer garment, Headdress, Shoes.

(투고 일자: 2015년 2월 4일, 심사 일자: 2015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3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Aharoni, Y., *Excavations at Ramat Rahel: Seasons 1950 and 1960*, Roma: Centro di Studi, 1962.
- Albenda, P., *The Palace of Sargon, King of Assyria*, Paris: E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1986.
- Avigad, N., *Hebrew Bullae from the Time of Jeremiah, Remnants of a Burnt Archiv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86.
- Barnett, R. D., "The Siege of Lachish", *IEJ* 8 (1958), 161-164.
- Barnett, R. D., *Assyrian Palace Reliefs and their Influence on the Sculptures of Babylonia and Persia*, London: Batchworth Press, 1960.
- Beck, P., "The Drawings of Kuntillet 'Ajrud'", *TA* 9 (1982), 2-68.
- Beck, P., "Catalogue of Cult Objects and Study of the Iconography", I. Beit-Arieh, ed., *Horvat Qitmit, An Edomite Shrine in the Biblical Negev*,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1995, 27-208.
- Bellinger, L., "The Bible as a Source Book for the Study of Textiles", *Workshops Notes* 18, 1958.
- Crowfoot, J. W. and Crowfoot, G. M., *Early Ivories from Samaria*, London: Palestine Exploration Fund, 1938.
- Crowfoot, J. W., Crowfoot, G. M., and Kenyon, K. M., *Samaria-Sebaste III: The Objects from Samaria*, London: Palestine Exploration Fund, 1957.
- Davenport, M., *The Book of Costume* 1, New York: Crown Publishers, 1988.
- Dever, W. G. "Gezer Revisited: New Excavations of the Solomonic and Assyrian Period Defences", *BA* 47 (1984), 206-218.
- Edwards, D. R., "Dress and Ornamentation", *ABD* 2 (1994), 232-238.
- Franklin, N., "The Room V Reliefs at Dur-Sharrukin and Sargon II's Western Campaigns", *TA* 21 (1994), 255-275.
- Heuzey, L. A., *Historie du Costume dans L'antiquité Classique L'orient. Égypte, Mesopotamie, Syrie Phenicie* (M.C.M: Les Belles Lettres, 1935)
- Holland, T. A. "A Study of Palestinian Iron Age Baked Clay Figurines, with Special Reference to Jerusalem: Cave 1", *Levant* 9 (1977), 121-155.
- Houston, M. G.,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and Persian Costume and Decoration*,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54.
- Hurvitz, A., "The Usage of .e. and bus in the Bible and its Implication for the Date of P", *HTR* 60 (1967), 117-121

- Im, M. and Barkay, G., "Egyptian Influence on the Painted Human Figures from Kuntillet 'Ajrud", *TA* 28:2 (2001), 288-300.
- Kletter, R., *The Judean Pillar-Figurines and the Archaeology of Asherah*, Oxford: Tempvs Reparatum, 1996.
- Loud, G., *The Megiddo Ivor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39.
- Loud, G., *Megiddo II: Seasons of 1935-1939*,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6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 Mackie, G. H., "Dress", *ABD* 1 (1988), 623-629.
- Mare, W. H., "Dress", *ZPE* 2 (1975), 164-170.
- Mattews, U. H., *Manners and Customs in the Bible*, Cambridge: Peabody, 1988.
- Matthiae, P., "The Painted Sherd of Ramat Rahel", Y. Aharoni, ed., *Excavations at Ramat Rahel Seasons 1961 and 1962*, Rome: Centro Di Studi Smitici, 1964, 89-94.
- May, H. G., *Material Remains of the Megiddo Cul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35.
- Mayers, C., "Ephod", *ABD* 2 (1992), 550.
- Mazar, B. and Mazar, E., *Excavations in the South of the Temple Mount, the Ophel of Biblical Jerusalem, Qedem 29*, Jerusalem: Institute of Archaeology, Hebrew University, 1989.
- Myers, J. M., "Dress and Ornaments", *IDB* 1 (1962), 869-871.
- Oppenheim, A. L., "The Golden Garments of the Gods", *JNES* 8 (1949), 172-184.
- Prausnitz, M. W. and Mazar, E., "Achzib", *NEAEH* 1 (1993), 32-36.
- Reade, J., "Sargon's Campaigns of 720, 716, and 715 B.C.: Evidence from the Sculptures", *JNES* 35 (1976), 95-104.
- Reade, J., *Assyrian Sculp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Petrie, F., *Gerar*, London: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in Egypt, 1928.
- Rubens, A., *A History of Jewish Costum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73.
- Sachs, C., *The History of Musical Instruments*, New York: W.W. Norton, 1940.
- Shiloh, Y., *Excavations at the City of David I. 1978-1982, Qedem 19*, Jerusalem: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84.
- Stem, E., "Phoenician finds from Tel Dor, Israel", *Rivista Di Studi Fenici* 19 (1991), 97-105.
- Ussishkin, D.,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1982.

Wäfler, M., *Nicht-Assyrer in Neuassyrischen Darstellungen*, Kevelaer: Butzon and Bercker, 1975.

Yadin, Y., et al., *Hazor I*, Jerusalem: The Magnes Press the Hebrew University, 1958.

<Abstract>

Costumes of Ancient Israel with Emphasis on Clothes Worn during the Old Testament Times

MiYoung Im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Naked at birth, all men come into the world equal. However, a man soon learns how to dress, using clothes to keep him warm or cool and to reflect his position in society with all its cultural connotations: religion, government, sexual differences, social rank, occupation, ethnic identification, etc. This has been a reality in everyday life for human beings for a long time.

Thus, knowing peoples' costumes may help us understand their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The people of ancient Palestine, who were the main players on the scene in the lands of the Bible, are presented with costumes to reflect their situation and character in the biblical sources. The study focus on the Iron Age II (1,000 to 586 B.C.E.) when the people of Palestine were very active. Due to the lack of remains, there are however difficulties in the study of costumes of ancient Palestine during the Iron Age II, and they have been emphasized. Most figurines are naked or partially preserved. Only two sites, Kuntillet 'Ajrud and Ramat Rahel, reveal painted sherds which bear clothed figures of foreign influence. Furthermore, the painting from Kuntillet 'Ajrud could not be utilized to postulate costumes for this thesis. The Assyrian artists did not draw exact looks of their enemies. A few fragments of textiles were preserved. Ambiguous mentions of clothing from the Bible bring more confusion.

Despite these difficulties, matching the archaeological evidence and biblical sources still provides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topic. According to iconography of archaeological evidence, people from ancient Palestine basically wore similar clothes although they belonged to different ethnic groups. Both men and women wore long robes, כַּחֲתָנָה, with sleeves. They must have openings like Egyptian or Syrian dresses. Most soldiers wore short מַדְיָם. Over the inner garment, they wore outer garments, שַׂמְלָה, a square or semicircle shaped piece of cloth. While men wrapped their bodies with שַׂמְלָה, women covered their heads

with it and drew it down to the back. Both men and women from Ashdod wore the same outer garments which wrapped their left upper arms and backs, and covered their entire heads. Phoenician women had shorter head cover while Edomite women covered their entire heads like modern Arabic women. The most interesting feature of costumes is the headdress. Each ethnic group seemed to wear different headdresses such as the peculiar headdresses of Judeans, the “Phrigian caps” worn by Jehu and his servants, and soldiers’ headdresses. The most distressing feature is that there is not much evidence of shoes, except the typical Hittite shoes worn by Jehu’s servants and the sandals worn by the Ashdodites.

My own reconstruction of ancient Palestine costumes during the Iron Age II based on this study was tried. Men and women are represented separately, and each ethnic group is also discussed. It was hard to represent according to occupation because there is not much evidence; however, kings’ costumes could be drawn based on the painted sherds from Ramat Rahel and the costumes of Assyrian kings. In addition, costumes of soldier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liefs found in the palaces of Assyrian kings. Priestly garments are also presented but these costumes were mainly dependent on the descriptions found in biblical literature. Although this study was neither easy nor good enough, as I stated in the beginning, I still hope this thesis has contribute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stumes of ancient Palestine during the Iron Age II.